

-(으)ㄴ들

~한들 — ~한다 해도 무슨 소용인가

어떤 가정을 인정한 뒤 그것이 소용없다고 일축합니다. 거의 항상 뒤에 수사 의문문이 오며, 그 답은 ‘아니다’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ㄴ들	후회하다 → 후회한들
받침으로 끝남	-은들	많다 → 많은들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든들
명사와 함께	인들	부자인들
뒤 절	수사 의문문	무슨 소용이 있겠는가
종립적 양보	-더라도	후회하더라도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 어간은 -ㄴ들, 받침 어간은 -은들을 쓰고,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: 만들다는 만든들이 됩니다. 명사에는 인들을 씁니다: 부자인들.

뒤 절은 보통 수사 의문문입니다.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, 어쩌하겠는가처럼, 그 가정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.

다음과 비교하면 -더라도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계속 나아가지만, -(으)ㄴ들은 그것이 헛되다고 선언하기 위해 인정합니다.

문체는 문어적이고 수사적입니다. 에세이, 연설, 속담 등에 쓰이며 일상 대화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

■ 예문

- 1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.
- 2 돈이 많은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랴.
- 3 아무리 서두른들 이미 늦은 일이다.
- 4 부자인들 시간을 살 수는 없다.
- 5 지금 다시 만든들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.
- 6 설명한들 그가 이해할 리 만무하다.

■ 비교

-더라도
-더라도는 극단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계속 나아가고, -(으)ㄴ들은 그래 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하기 위해 인정합니다.
힘들더라도 하세요. (그래도 하라) / 후회한들 소용없다. (후회해도 달라지지 않는다)

-아/어 봤자
헛되다는 뜻은 같고 문체는 반대입니다. -아/어 봤자는 가볍고 무시하는 구어체이고, -(으)ㄴ들은 문어적이고 수사적입니다.
해 봤자 소용없어요. (구어) /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. (에세이)

-(으)ㄹ지언정
둘 다 문어적인 양보 표현입니다. -(으)ㄴ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결론짓고, -(으)ㄹ지언정은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.
후회한들 소용없다. (헛됨) / 굶을지언정 빌리지 않겠다. (단호함)

■ 주의

- ✗ 지금 다시 만들은들 예전 같지 않다.
- 지금 다시 만든들 예전 같지 않다.
만든 음식, 아는 사람처럼 ㄹ로 끝나는 어간은 -(으)ㄴ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후회한들 기분이 좋아졌다.
-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.
뒤 절은 그 가정이 소용없다고 선언해야 하며, 보통 수사 의문문으로 나타냅니다.
- ✗ 야, 지금 후회한들 뭐 하겠어.
- 야, 지금 후회해 봤자 소용없어.
-(으)ㄴ들은 문어적입니다. 대화에서는 -아/어 봤자가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.